









협동전야를 사회주의땅답게 전변시킨 투쟁의 날과달

두달동안에 1100여명의 토지를 정리, 150여km의 논두렁과 용비수로, 2000여개의 논매미를 없애고 찾아낸 새망 10여정보!

혁명적인 전개력으로 열어제긴 진척의 돌파구

토지정리돌격대 황해북도려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자변 불도들의 가용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였다. 일군들은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맞는 방법을 찾는데 기초하여 필요한 모든 무수품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계획부터 주도적으로 세웠다.



장풍군 대대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실천력

장풍군대대의 일군들과 함께 대원들은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토지정리 전투과제를 128% 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대중을 기술혁신의 주인으로

봉산군 대대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애민과 가능성을 넘김없이 탐구하고 기술혁신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활발히 벌여 생산적양상을 일으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사상과 권위를 절대화하고 결사옹위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앞에 다진 맹세를 변함없이 지켜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은파군 대대에서

어느 한 불도들의 리더관이 없었다. 당장 교체할 리더관이 없었다. 이때 도들은 불도들도 맡아서 하게 되었다.

당초급선전일군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사회의경제건설의 전구마에서 선봉원, 5호당당선원들이 당초급선전일군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대중을 당의 사상관철, 당정령을위전제로 불리워오기는 화신신선전생활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이신작적의 감화력으로

최근 신양군산과실가공공장 공정에선 선 성과를 올렸는데 이는 높이되고있다. 재공의 힘이 높아져 매달 10%의 진척을 견주어온 전신회에서는 전진 평가를 받고있다.

